

海 外 情 報

우리나라 熔燐, 11月初 酒田港에 入港

= 住友商事 輸入을 決行키로 =

關係者間的 調整 難航으로 空轉繼續

日本 住友商事가 輸入하는 韓國熔燐의 第1船 1,500 吨이 오는 28日頃 仁川港을 出港, 11月初에는 酒田港에 入港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 第1船은 日本業界의 關係者間的 利害關係의 調整이 如意치 않아 늦어지고 있었는데 調整이 끝나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걸릴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輸入을 決行키로 했다 한다.

韓國熔燐의 輸入은 日本으로서는 처음인바 이로서 이러한 輸入의 經驗이 없는 Maker로서는 매우 當황하고 있는 狀態라고 한다.

따라서 業界로서는 關係者들(現在는 住友商事, 三菱商事 및 全農)의 調整에 期待를 걸고 있으나 關係者들로서는 對外的인 商權問題와 国内的인 流通(市況)問題등을 내세워 "條件"을 내걸고 있어 調整이 難航을 免치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關係者들로서는 쓸데없는 時間의 浪費를 願치 않고 있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早期妥結」의 可能性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다.

總額 1億 1,710萬달라
=前年比 37% 增으로 크게 回復=
日本의 77年上期 化肥輸出実績

日本通産省이 最近 發表한 바에 依하면 今年 4月부터 9月까지 化学肥料 上期輸出 認證額은 總額 1億 1,710萬달라로서 前年上期에 比해 37.3% 增加하여 大幅的인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輸出対象国別 内訳을 보면 中国 8,033萬달라, 比律賓 497萬 2,000달라, 泰国 496萬 2,000달라, 台湾 385萬 3,000달라, 마레이 지아 360萬 3,000달라 등이다.